

學會創立을 회고하면서

黃壽永

1. 難産의 數年

六·二五 戰亂이 겨우 收拾되고 秩序가 차차 잡혀지면서 국내에서는 戰鬪에 따른 특이한 現象이 나타났다. 그것이 古鐵蒐集인데 그 主品目은 彈皮를 비롯한 軍需品으로 戰場에 遺棄된 것들이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소위 金屬探知機이다. 그리하여 全國을 무대로 橫行하던 古物蒐集商들은 얼마 아니하여 그들의 對象을 古代의 史蹟이나 佛蹟같은 곳으로 擴大하여 그곳에 埋藏된 佛像·佛具등을 發掘하기 시작하였다. 上代의 貴重한 金銅佛 고려의 香垵 梵鐘 般子등 靑銅遺物이 一時에 국내 좁은 市場에 登場하였다. 그런데 이들중에는 그 自體에 紀年등 長短의 銘文이 記刻된 作品이 또한 적지 않아서 한층 注目을 끌기도 하였다.

이같은 土中品 이외에 地表의 石塔·浮屠가 日帝受難에 이어서 掠奪의 標的이 되었다. 특히 深山溪谷에 있던 古代寺庵 또는 그 遺址가 道路의 整備를 따라 이들에 의한 事故가 頻發하였다. 그중에는 「경주과」같은 地方民들이 작당하여서 작키같은 引揚用 機器를 사용하여 深夜에 塔身을 인양하고 舍利藏具를 도취하는 일이 발생하여 마침내는 寺刹境內까지 侵入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 유품이 收藏家에게 不法賣渡되어 巨利를 얻기에 이르렀다. 때로는 金石의 塔誌같은 貴重品이 同伴되어서 관계자를 당황케 하기도 하였다.

위와같은 정세가 심화됨에 따라 이들중 학술가치가 높아서 그들의 조사와 記錄이 필요함을 통감케 하였다.

우리 「考古美術」은 바로 이같은 時代를 배경으로 그들의 收拾과 記錄化 그리고 考古·美術 兩部門에서의 人的 物的 情報의 迅速한 傳達를 切感하게 하였다. 그 까닭은 특히 귀중한 新出世品이 民間 또는 海外로 流出될 위험이 따랐기에 한장의 사진 한장의 메모라도 남겨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換言하자면 考古·美術의 신속한 情報交換도 매우 바람직하였다. 創刊을 위한 몇 사람이 이에 뜻을 같이하여 定期物을 刊行하여야겠다는 뜻이 모아졌고, 그를 위하여 必要한 準備가 論議되기도 하였는데, 그 장소는 서울 종로 四街의 澗松宅이었다. 그리하여 全鑿弼선생이 그 刊行을 위한 資金을 마련하여 보자는 말씀과 함께, 時間을 遲滯할 것 없이 곧 프린트本으로 始作하자는 주로 필자의 主張이 개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누구나 對內外用으로는 印刷製本된 아담한 刊行物을 바랐기에 後者의 뜻을 누르고 資金준비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나 結果는 約二年 가까운 時間만의 空費였다. 당시 澗松宅의 資金壅塞은 더욱 甚化되어서 필자에게 開城人의 資金을 融通하여

달라고 부탁하신 기억이 떠오른다. 이리하여 時間은 흐르고 일의 成就是 멀어가기만 하였다. 마침내 一九六〇年 여름을 맞이하여 프린트로 發行키로 決定하고 그해 八·一五를 기하여 創刊케 된 것이 「考古美術」難産의 경위라고 할까. 필자는 그때 時間의 虛送을 안타깝게 여겨왔다.

2. 創刊의 契機－油印本

「考古美術」의 題字는 澗松이 밤을 새우며 阮堂筆跡에서 애써 集字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 四字는 「考古美術」제2권 1호 통권6호부터 使用되어 온 것이며 創刊號에서 통권5호에 이르는 초창기에는 三佛 金元龍이 創刊辭와 같이 마련한 것이다. 그때의 産室은 國立博物館(德壽宮 石造殿)이었으나 얼마 아니하여 밖으로 옮겼다. 그 까닭은 國立博物館에서 뒤따라 「美術資料」를 創刊하면서 부터다. 이때 「考古美術」이란 이름을 考古美術同人會에 先占당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들었으나 그 發足에 「考古美術」이 어떤 刺戟을 주었다면 그 일은 서로 나쁘지는 않았다. 그러나 「美術資料」創刊號의 筆者는 또한 거의 同人會멤버였다. 그리하여 解放後 二十年이 지나서 二種의 定期物이 出世하였으나 하나는 年刊으로 出發하였고 하나는 月刊이나 謄寫本에 寫眞을 貼付하는 手工業方式을 따랐다. 前者는 官廳印刷物이요 後者는 民間모임의 同好人紙로서 部數는 오직 100部로서 費用은 五,000圓이었다.

이같이 出發한 「考古美術」은 刊行日을 嚴守하여서 每月一日로 하였고 프린트는 한국은행 張衡植씨의 好意로 同行의 등사室 근무 黃允默씨의 手苦에 의하였다. 發行場所는 一定한 곳이 없어서 同人의 自宅를 돌면서 마루에 둘러앉아 사진을 貼付하였는데 每號당 페이지는 약五十, 各號의 사진은 보통 十枚를 넘었다.

그런데 이 사진은 始終 鄭永鎬가 그당시 在職하던 淑明高女의 暗室에서 同僚 文甲洙와 학생 金和英의 손으로 이루어졌는데 號當 많을 때는 二千枚를 훨씬 넘었다. 그러므로 發刊日까지는 「考古美術」프린트本과 사진이 準備되어야만 하였기에 發刊日의 集음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神經을 써야만 하였다. 이 製冊作業은 號數를 거듭하면서 매우 익숙하여져서 所要時間도 短縮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配布作業도 이루어졌다. 이같이 하여서 「考古美術」은 每號마다 每月一日午後에 出刊되었기에 그날이 同人會의 모임날이 되었으며 동시에 新號誕生의 날이어서 同人들은 이 날을 지켰으며 無料奉仕의 하루를 同人宅에서 저녁식사를 나누며 新號出産을 대견하게 여겼다. 每號마다 同人집을 옮기면서 이 작업이 이루어졌기에 각 家庭의 精誠이 따랐고 서로의 親和도 깊어갔다.

3. 100號의 完刊-世界最貧의 美術紙 評

手工業에 따르던 同人紙 100部の 계속는 出帆이후 比較的 順調로워서 얼마 아니 되어서는 編輯이나 製冊이 軌道에 올라 刊行日을 어긴 일이 없었다. 各自의 新資料나 新아이디어의 소개도 모두

短文이어서 그다지 큰 負擔은 없었던듯 하다. 同人의 地方調査나 新資料의 着眼이 頻繁하여서 每月 또는 隔月등으로 사진 添付의 論文을 모으기는 큰 遲滯가 없었다. 한편 同人이외에도 投稿를 위하여 學界의 元老級으로서 우리 同人會 일에 好意를 보여준 人士에게 原稿를 청탁하기도 하였다. 金庠基 李弘植 趙明基教授님의 數次 寄稿가 있었고 地方大學의 教授가 呼應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외에 日本의 梅原教授의 原稿가 있었고 또 日本등지에 少數部가 每月 郵送되었는데 이 「考古美術」을 받고 “世界에서 가장 貧弱한 美術誌”라는 評이 나왔다고 한다.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 따질 것도 없는 일이지만 이 때는 二次大戰直後의 困難하던 時期를 벗어나 定期刊行物이 그 體裁나 內容이 充實을 志向하고 있을 때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것이 印刷本에 사진을 풀로 부쳐서 動亂후도 한참 지나서 出世하였으니 그같은 評이 나왔다 한들 있을 법한 일이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創刊當時보다 더 遲延시켜서 오늘과 같은 印刷本을 기대하였다면 아마도 四·五年의 空白을 免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같은 事由로 더 늦었다면 創刊을 위한 難産數年을 훨씬 넘은 空白期를 自招하였을 것이다. 꾸준히 계속된 100號까지의 月刊油印이 그 사이 小論文과 資料의 集成을 成就한 점은 評價받아야 할 것이며 적어도 그 사이의 空白을 메꾸어 記錄化의 實績을 쌓았다고 自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創刊同人의 決斷과 그후 十年의 惡戰苦鬪는 그 勞苦의 代價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4. 「考古美術」資料集 二十二冊의 續刊

「考古美術」月刊本이 軌道에 오르자 同人사이에는 今世紀에 들어서 日帝三十六年을 넣어 그사이 進行되었던 國內의 文化財被害 및 補修와 調査에 따르는 資料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우리손으로 整理하는 過程이 全無하였다는 指摘이 있어서 考古美術研究의 앞날을 위하여서는 그같은 基本努力이 반드시 進行되어야 함에 意見의 一致를 본 바 있었다. 그같은 論議속에는 우리의 考美文獻集成이나 年表作成의 일도 포함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러한 資料의 油印成冊을 이루어 同人에게 配布키로 하고 國立博物館을 中心으로 하여 日帝期の 資料類 또는 그 기간중 内外人에 의하여 集成되었으나 未刊으로 남아있는 考美資料등을 選定하여 그 整理를 進行하였다. 한편 同人등의 勞力으로 重要遺蹟이나 遺物의 收拾 및 金石文新資料의 集成도 이 안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資料集은 年代와 內容에 따라 몇가지로 分類될 수가 있으나 總計 二十餘冊에 그쳤으므로 이곳에서는 刊行順을 따라서 그 題目과 頁數와 刊行年月만 나열키로 하였다. 필자는 이곳에 集成된 同人들 중에서도 獻身의으로 刊行을 추진하여 주신 故 洪思俊선생의 盡力을 길이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創刊부터 最終號까지 때로는 扶餘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油印·校正을 全擔하시던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手當은 全無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難作業의 完遂는 이 資料集中 『韓國畫論集成』二冊을 世上에 나오게 하여 주었으니 그 고마움을 오늘 다 表現할 수는 없다. 功만을 바라고 그것을 이루는 艱難을 모면하려는 것이 人之常情이라 하겠는데 然齋선생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考古美術」에 선생이 보여주시신 熱情은 純粹하였고 始終一貫

하였다. 이같이 續刊된 資料集은 오늘에 이르러 그 빛이 흐려졌으나 몇冊은 다시 刊行되었고 나머지는 그런대로 資料價値를 지니면서 길이 남을 것이다.

一九六二年부터 滿十一年間에 計二十二冊이란 그 數가 많은 것은 아니나「考古美術」油印月刊과 並行되어 우리 古美術研究의 重要資料集으로 또한 油印配布된 사실은 그 뜻이 깊다고 하겠다. 이 集成은 七三年으로 中斷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刊行資料가 남아있다. 필자가 주로 鄭永鎬 그리고 부여의 洪思俊선생과 힘을 모았다. 그중에는 오늘 活版으로 再刊된 것도 있는 月刊本 이외에 이같은 資料集의 出刊이 또한 初期同人들의 손에서 이루어진 뜻은 한국미술의 研究에 獻身하려는 學徒에게는 各自의 領域에서 留意되어야 할 것이다.

5. 發展의 길 : 同人會에서 學會成立, 月刊에서 季刊으로

油印에서 活版本으로 同人會에서 學會로의 變身은 우리가 처음 發足時의 期待와 같지는 않았다. 同人의 一致된 刻苦의 努力이 十年의 歲月을 두고 계속되었으나 小成에 安住한 닷인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첫째는 經濟的 理由에서였다. 國內에서는 새로운 經濟發展이 이루어졌고 國民生活에도 多少의 餘裕를 얻게 되면서도 우리의 가난한 살림은 改善되지 못하였다. 每月의 油印費를 얻기 위하여 特志家를 찾아야 하였고 會社廣告를 얻어야만 하였는데, 이같은 일은 누구도 즐거하려 하지는 않았다. 民間인으로 美術品蒐集에 巨萬의 돈을 投擲하면서도 우리의 가난한 살림에 작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드물었다. 美術品鑑定을 부탁하는 富者는 있어도 그 代價를 주려는 배려는 전혀 따르지 않았다. 油印本時代가 의외로 길어진 것이 同人들의 消極的 活動에 있었다고도 하겠으나 또 위와같이 우리 活動에 큰 도움을 주려는 일도 없었다. 그리하여 油印本百號達成을 期約하면서 그것을 脫皮의 契機로 삼기로 기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一九六八年 二月 韓國美術史學會로 발전적 개편을 결의하였고, 그해 十一月十五日 마침내 100號 完刊의 날을 맞이 하여서는 月刊 油印의 同人誌에서 季刊 活版本 千部 發行의 學會誌로 옮겨갈 수가 있었다. 每月의 集음이 없어짐에 가벼운 虛脫같은 느낌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同人들은 새로운 發足에 滿足할 수 밖에 없었다.

6. 學會發展과 고마운 분들

季刊이 始作된 후 每月의 모임은 사라지고 製冊이 모두 工場으로 넘어갔다. 信興印刷所가 이 일을 맡았는데 가난한 學會誌이기에 收支가 넉넉할 까닭이 없으나 그사이 맺어진 人間관계와 그곳 社長 이하 社員들의 理解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季刊이 되면서 部數가 1,000이므로 急増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紙價등에 大差가 없었기에 在庫가 생기는 사실을 知悉하면서도 앞날을 기대하면서 千部가 固守되었다. 百部에서 十倍로 늘어남에 따라서 學會의 組織과 會誌普及

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代表制가 생기고 會員制와 一般販賣도 通文館書店(李謙魯)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時間의 餘裕도 얻게 되었고 또 印刷本이 101號부터 나오게됨에 기왕의 油印本 100號의 一括印刷가 論議됨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 쉽지 않은 作業이 다행히 通文館의 배려로 着手하게 되었고, 500部限定的 上下 二卷本으로 各卷마다 五百頁을 넘었다. 校正에 있어서 誤字가 注目되기도 하였으나 百號까지 同好人時代의 정성을 다한 結集이 다시 이루어져서 歡喜와 安堵가 따르기도 하였다. 故 崔淳雨氏는 重刊辭에서 百號까지 論考 八三五篇에 대하여 “그 大部分이 同人들의 손수 調査한 새 資料를 다루었다”고 하였고, 끝으로 “그사이 이끌어주신 創立會員 澗松 全鑿弼선생과 陰으로 陽으로 本會의 發展에 마음을 깊이 쓰신 東濱 金庠基先生에 대한 아쉬움”을 들고 있으며, 이에 참여하여 獻身的으로 애써주신 고마운 同人들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여 衷心의 謝意를 표하고 있다.

鄭永鎬 孟仁在 李浩官 文甲洙 金正基 金和英 申榮勳 金禧庚 鄭明鎬 鄭良謨 李淮求 李永樂 金光洙,
특히 鄭永鎬교수는 「디젤機關車」라는 別名이 붙었고 張衡植同志의 뒷바라지를 들었다.

위에서 崔氏가 들은 여러분 以外에 오늘에 이르러 필자가 그들에 이어서 추모되는 人士가 있다. 일찌기 他界하셨으나 우리 季刊本時代에 걸쳐서 고마운 두분을 들어야 하겠다. 먼저는 創刊이래 내일과 같이 좋아하시며 勞苦를 아끼지 않으신 前扶餘·慶州博物館長 洪思俊선생에 대한 것이다. 누구보다 「考古美術」의 創刊을 激勵하시고 論攷를 보내주셨고 더우기 資料集刊行에 있어서 熱誠을 보여 주시었다. 漢文原稿인 高裕燮선생의 방대한 유고 『朝鮮畫論集成』이 서울에서 油印이 不如意하자 선생은 그것을 扶餘로 옮겨서 油印本 二卷으로 完刊하여 주셨던 것이다. 文中의 어려운 漢字를 손수 校訂하여 주시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나 自身이 그 經費라고 보내드린 것은 겨우 膳費뿐이었으니 오늘 돌이켜 송구할 따름이다. 선생은 우리에게 「安貧樂道」의 生涯를 보여 주신 고마운 先覺이었다.

다른 한분은 故 李弘植선생이시다. 선생과는 解放直後 國立博物館에서 처음 뵈었는데 大學先輩가 되시는 因緣도 있었다. 그후 얼마 아니하여 六·二五動亂이 터져서 九·二八 國軍入城의 날까지 苦難을 같이 겪기도 하였다. 九·二七밤을 꼬박 새면서 선생은 덕수궁 石造殿下層에서 砲彈片에 顔面을 負傷하여 鮮血이 滿面을 덮고 쓰러지시던 일은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그후 선생과 나는 事情에 따라 함께 博物館을 떠났고 선생은 水原 新葛로 가는 釜山으로 向하였었는데 그에 앞서 家族과 高裕燮先生의 遺稿는 선생을 의지하여 新葛農家에 避難하였었다. 그런데 一·四後退 후 바로 그곳이 中共軍南下의 最前線이 되어서 部落은 불바다가 되었다. 이같은 戰禍를 거듭 겪으면서 『三國遺事索引』을 마련하였던 선생은 「考古美術」에도 原稿를 마련하여 우리를 激勵하여 주신 고마움이 있다. 高麗大에서 歸家途中 安岩洞집에 들르셔서 막 나온 「考古美術」을 보시고 酒床에 談笑하시던 일이 떠오른다. 同人들이 모여서 큰 밥상에 둘러앉아 「考古美術」空欄에 一一이 寫眞을 손수 풀칠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선생과 澗松 그리고 東濱선생 三人의 두터운

親分이 습하여 「考古美術」의 飛躍의 앞날을 祝願하여 주셨을 것으로 확신된다.

7. 「考古」分離에 따르는 變化

「考古美術」은 그 이름대로 考古學과 美術史의 두 領域을 包括하여 出發하였다. 그러나 時間이 지남에 따라서 이들이 分離되어 각기 自己領域을 찾아서 學界에서의 自立을 志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考古學은 韓國美術史學會 成立에 이어서 韓國考古學會가 成立되어 學會誌를 따로 갖게 되었다. 이같은 分離過程은 全國의 大學에서 考古美術史學科가 점차 新設됨에 따라 더욱 뚜렷하여 갔고 發掘調査가 盛行됨에 따라 기왕에는 「考古美術」에 소개되었던 論文이 따로 集成된 것은 당연한 귀추였다. 韓國美術史學會 또한 發足이후 그사이 견지하여 오던 誌名인 「考古美術」을 再考하는 새로운 契機가 마련되었는데 그 時期가 學會運營의 人的交代와 符合된 일은 우리 學會의 成長過程에서 슬기롭게 克服하여야 할 일이었다.

이제 三十주년을 맞아 멤버의 交替, 組織의 정비, 그리고 冊名의 改新이 있었다. 동시에 오랜 소원이던 學會 事務室이 마련되었다. 새 술은 새 그릇에 담아야 할 것인 바 이제 새로운 活力을 가다듬어 學會發展을 위하여 前進만이 있을 따름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곳에 光明이 있으니 오직 꾸준한 內實이 따르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하여 世界最貧의 美術誌에서 世界에 내놓아 부끄럽지 않은 學會誌를 志向하면서 모두의 힘을 이 한곳에 結集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創立을 돌이켜 모두의 切磋琢磨의 研學과 粉身碎骨의 精進이 따라야 할 것이다. (一九九一. 三.)

考古美術資料集 總目錄

〈表〉

	書名	著編者	頁數	價格(円)	發行年月
一輯	慶州古蹟詩文錄	洪思俊 編	本文 七四 附錄 二六	八〇〇	62. 3.
二輯	金石遺文	黃壽永 編	本文 二〇〇 사진 九	一,〇〇〇	63. 8. 15
三輯	高麗末朝鮮初의 木造建築에 관한 研究	杉山信三 著 申榮勳 譯	本文 四三四 사진 四二	三,〇〇〇	63. 6.
四輯	韓國塔婆目錄	金禧庚 編	一三四	五〇〇	63. 12. 25
五輯	韓國古建物上樑記文集	申榮勳 編	二〇〇	八〇〇	64. 6. 30
六輯	韓國建築美術史草稿	高裕燮 遺著其一	一五二	八〇〇	64. 12. 24

七輯	佛國寺·華嚴寺事蹟	黃壽永 編	一五九 부록 四一	八00	65. 3. 1
八輯	朝鮮畫論集成 上·下	高裕燮 編	上, 四八八 下, 五四七	二,000	65. 9. 30
九輯	朝鮮塔婆舍利目錄	金禧庚 編	四八	五00	65. 11. 20
十輯	朝鮮美術史料	高裕燮 遺著其二	三九0 사진 一	八00	66. 2. 15
十一輯	高麗法泉寺智光國師塔碑 殿址調查概要	金東賢	三九 사진 二一	八00	66. 8. 30
十二輯	然齋考古論集	洪思俊	一八六 사진 三		67. 2. 28
十三輯	韓國石燈目錄	鄭明鎬 編	九二		67. 3. 15
十四輯	韓國塔婆의 研究 各論初稿	高裕燮 遺著其三 黃壽永·金禧庚 編	二三四		67. 3. 31
十五輯	續金石遺文	黃壽永 編	一八六 사진 九		67. 4. 30
十六輯	楡岾寺五十三佛	黃壽永 編	四九 사진 一〇九		67. 12. 15
十七輯	高裕燮著作目錄	黃壽永 編	一三0 英文 六		67. 12. 15
十八輯	韓國考古美術文獻目錄	秦弘燮 編	一九三	一,000	67. 12. 20
十九輯	世宗端宗胎室修改及表石豎立儀軌	金庠基 (解題)	九0	五00	67. 7. 1
二十輯	韓國塔婆研究資料	金禧庚 編	二八八 사진 五	一,000	68. 11. 15
二十一輯	金石遺文(第三輯)	黃壽永 編	二八八 사진 五	一, 二00	72. 1. 30
二十二輯	日帝期文化財被害資料	黃壽永 編	三〇七		73. 1. 25